

[資 料]

인명의 중요성

Importance of Human Life

※ 金 鎮 源
J. W. Kim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간혹 보게된다. 그 사례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교통규칙이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모든 차는 멈춘다. 사람이 먼저 건너간 후에야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차가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 아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차가 다 지나가야만 사람이 건너간다.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는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 점들은 바로 고쳐야겠다.

사람이 먼저 건너 간후에 차가 지나가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므로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역시 불감증에서 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행동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안전 불감증의 발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사례로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객은 관악산 정상에 오른적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연주대 사

당은 많은 불교인들이 성불하는 곳이다. 그 밑에 지반을 보면 절벽이며 수직절리(Joint)가 많이 있다. 그것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외국인이 보면 어찌 생각할까. 멋있다고 보기 보다는 위험하다 생각할 것이다. 언제 절리면이 풍화에 의해서 화강암 절리의 파괴로 붕괴될지는 그 시기는 알수 없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곳에 시설물 설치를 하지 말라 할 것이다.

매번 볼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 분명한데 한국인은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할 뿐 실천을 못하는 사례의 하나이다. 사찰을 옮기거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붕괴가 전혀 향후에 일어날 수 없게 보강되어야 한다.

연주암측에 문의하여 불안함을 알리니까 걱정해 주어서 고맙다고 한다. 그런데 연주대가 있는 곳은 문화재 지역, 군사 지역, 기상관측 지역, 불자의 지역, 관악구청의 행정 구역 등, 연주대 사찰의 안전지대로 이동시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지나가고 있다 한다.

※ 지구물리, 응용지질기술사, 동일기술공사 고문,
本會이사

인명의 중요성 차원에서 이대로 언제까지 지나가야하는지 외국인 같으면 어찌했을까 생각하면서 겨우뚱하게 된다. 일요일은 약 700여명이 연주대 사당을 다녀간다고 한다. 위험요소는 항상 내재하고 있는 지대이므로 사전 붕괴사고가 날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거나, 보강해서 사고가 영구히 안나도록 해야 한다. 별 사고 안나겠지. 우리세대에는 붕괴 안되니까 염려말라는 막연한 마음만을 우기면서 나의 생각을 깔아뭉개니 예방하고자 하는 의욕을 어찌해야할지 당혹스럽게 된다.

오늘도 관악산을 등산하면서 불안한 마음에서 절대로 연주대 사당에는 가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 아무렇지도 않는데 겁만을 주었다한다. 험구무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과연 이래서야 되는가? 이제는 연주대는 오르지말고 연주암까지 등산을 할까 한다.

—。—。—。—。—。—。—。—。—。—

숙변제거로 長壽를 누릴 수 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는 “인간은 자연과 멀어질수록 병에는 가까워진다”라고 했다. 야생동물들에는 암도 없고 고열암도 없으며 심지어 야생동물들의 분비물에서와 같은 심한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자연식을 하고 있고 또 완전한 소화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먹은 먹이를 완전히 소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반자연의 문명생활을 즐김으로써 여러 가지 성인병, 문화병, 노인병 등을 스스로 불러들인 셈이 된다.

특히 중년이 되면 사장배(復)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인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혀약함에서 벗어나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야생동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동물들이 걸을

때의 동작을 잘 살펴보면 등이 좌우로 굴신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등이 좌우로 굴신운동을 하게되면 척추부위에 유연성이 발달하여 내장기관의 대사기능의 좋았지마 마련이다. 이뿐 아니라 동물들이 걸어갈 때는 복부가 위아래로 파동운동을 한다. 이와 같이 행하여지는 보내장기관에 자극을 주어서 소화기능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 동물들은 내장기관에서 이상 조건 단식을 해버린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는 감기가 들어 밥맛이 없어도 먹어야 감기가 낫는다 생각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지만 우리 생체의 조건은 그 정반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밥맛이 없을 때는 먹지 않아야 밥맛도 되살아나고 건강에도 좋다. 다시 말해서 밥맛이 없다는 것은 우리 내장에서 어떤 고장이 생겼다는 징조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병을 보는 사람도 장담해서는 안된다. 한 번쯤은 시간을 내어 단식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숙변이 있어 이것이 오랜기간 동안 장안에 달라붙어 부패하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생체에 해로운 독가스와 화학물질을 발생하며 혈액속에 흡수되어 암을 비롯한 만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만병의 근원이 되고 노화의 원흉인 숙변을 제거하는 제일의 방법으로 단식을 들 수 있다.

옛 어른들이 말해온 건강에 대한 健康豫知訓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小肉多菜 - 고기를 적게먹고 채소를 많이 먹는다.
 2. 小鹽多酪 - 소금을 적게 먹고 식초를 많이 먹는다.
 3. 小糖多果 - 설탕을 적게먹고 과일을 많이 먹는다
 4. 小食多咀 - 음식을 적게먹고 많이 씹는다.
 5. 少煩多眠 - 번민을 적게하고 많이 잔다.
 6. 小怒多素 - 화내지말고 많이 웃자.
 7. 小衣多欲 - 옷을 얇게 입고 목욕을 자주 한다.
- 。—。—。—。—。—。—。—